

“국민가시는 길 안전하게” 고속도로 순찰대 ‘동분서주’ 활약

설 연휴 귀성·귀경길 안전 지킴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경찰관들이 설 명절 연휴 셋째 날인 23일 오전 청사 상황실에서 호남고속도로 내 차량 3중 추돌 사고 현장 실시간 CCTV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는 열셋. 호남선 88K 천안 방면 추돌. 북광산부터 정제.”

설 연휴 셋째 날인 23일 오전 전남 담양군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상황실은 현장 무전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에서는 사고 구간·상승 정체도로 등을 비추는 실시간 CCTV 영상이 표출됐다.

오전 10시 40분. 한국도로공사가 관제 영상을 통해 호남고속도 천안 방면 88K 지점(월곡) 1차로에서 SUV 차량 3대가 추돌했다는 상황을 알려왔다.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각 고속도로 주요 요급소·나들목 영상을 표출하던 상황판은 삼시간에 사고 지점을 비롯한 호남선 주요 구간 영상으로 바뀌었다.

10여 년 근무 경력의 한병주 경위는 표출 CCTV 영상을 수시로 바뀌며 사고 지점 전후 구간 내 통행량을 살폈다. 현장 순찰차에 곧장 무전으로 출동 소요 시간 등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지점과 1km 떨어진 호남선 87K 지점(북광산)부터 전 차로 정체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홍석길 팀장도 일어난 채 상황판에서 한 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사고 현장 도착까지 2차 사고 위험은 없는지, 수습 과정에서 앞뒤 구간 교통 흐름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출동 무전을 받은 현장 순찰차가 회차 지점을 수십km 급히 돌아 도착했다. 순찰차는

정차 직후 경광등을 높이 들어올려 주변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리고 서행을 유도했다.

뒤따른 도로공사 차량도 대형 차선 변경 유도등을 켜 채 안전한 사고 수습을 도왔다. 그제서야 상황실은 안도했다.

출동 경관들은 무전으로 간략한 사고 경위와 운전자간 보험 처리 종결 사실 등을 상황실에 알렸다.

다만 대형 SUV 1대가 사고 충격으로 누유까지 발생, 견인되기까지 30분 이상 걸렸다. 견인 직후 도로공사 관계자들은 도로 위 사고 잔해물을 치웠고,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에 떨어진 유류를 제거했다.

43분 만에 상황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호남고속도 순천휴게소 4K 지점 상황판을 달린 승용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판 영상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16분할 화면으로 바뀌었다.

다행히 승용차는 갓길에 정차,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탑승자 2명도 안전 대피했다. 상황실은 소방차에 긴급 출동 진입 지점을 안내하고 2차 사고 예방에 힘썼다.

오전 11시 10분에는 영암-순천선 해룡터널 106.6K 지점에서 차선 변경 도중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 2·3차로 일부 구간이 막히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순찰차 도착 예정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확인되자, 한 경위는 재빨리 순천경찰서에 순찰차 지원을 요청했다. 순찰차 1대 당

관할 구간이 넓어 종종 발생하는 일이며, 효율적인 사고 수습을 위해 빠른 공조 요청이 중요하다고 상황실 측은 설명했다.

비슷한 시간대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원덕1교 터널 입구 114K 지점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 상황 관제는 이원화됐다.

한 경위는 “아무래도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명절이 가장 바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가족들이 이해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국민들이 가족·친지·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안전하도록 명절 근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도 부지런히 관할 도로를 누볐다. 배기량 3000cc 이상 고성능 차량인 암행순찰차는 곡에 주행 차량, 제한속력을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차량 등을 발견하자마자 속력을 올렸다.

조수석 측에 놓인 단속 단말기가 변호판·속력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간격을 좁히자, ‘띠링띠링’하는 소리가 울렸고 단말기 화면 내 과속 차량 주변에 빨간색 사각형이 표시됐다. 곧바로 변호판과 주행 속도가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됐다.

단 30여 분 단속에서 총 5대가 적발됐다. 단속 정보 검수를 거쳐 전산시스템에 입력,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제한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넘긴 ‘초과속 차량’은 정차를 유도, 신원 확인 뒤 형사 입건된다.

암행순찰차는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400km 안팎에 달하고 급가속도 잦다. 때문에 늘 위험을 안고 달린다.

이번 연휴 중 순찰대 경찰관 80여 명이 번갈아 근무하며 하루 또는 이틀만 쉰다. 하루 평균 30여 명이 현장을 지킨다.

상황실 1개 팀(4명)이 관할 8개 고속도로(▲남해 ▲무안-광주 ▲광주-대구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고창-담양 ▲광주외곽고속도로)내 모든 상황을 관제한다. 총 길이가 458km에 달한다.

구간 순찰차 8대, 암행 순찰차 3대는 정제 구간 교통 지도, 갓길 주행·과속 단속을 펼친다. 연휴 기간 내내 헬기도 이륙해 관할 고속도로 전 구간 교통관리 상황 파악·전파 등을 돕는다.

홍석길 팀장은 “고속도로에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접촉 사고가 나면 수습 과정에서 주행 차선 위에 서성이면 안 된다. 가능하다면 차량을 갓길로 옮기고 도로 안전울타리(가드레일) 바깥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환기자



전남도,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한다

10년간 4조 5천억...진입부터 소득창출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전남도는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농어업 100년을 이끌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31년까지 10년간 4조 5천억을 들여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민선8기 도지사 주요공약인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을 통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의 진입부터 소득 창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농업 분야는 ▲농지 및 스마트팜, 각종 저리 융자·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기반 지원 ▲경영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 지원 등 고소득 농업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마련 ▲청년농이 안심하고 사는 정주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44개 사업에 3조 3천538억 원을 투입한다.

수산 분야는 ▲청년 유입을 위한 소득기반

확충 ▲안정적 청년 고용과 거주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창업 지원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에 1조 1천788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계획 수립에 앞서 정책 수요자 맞춤형 사업, 체감도 높은 정책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청년농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했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우량 농지 확보를 신규 사업으로 설계·지원한다.

특히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의 핵심사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11개소를 2024년부터 2031년까지 2ha 규모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진입 초기 청년농의 농지·시설·기술 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창업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양경제청, 한독상공회의소와 함께 회원사 대상

한·독 경제전망포럼 개최...투자유치활동 전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최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독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독 경제전망포럼(KGCC Economic Outlook 2023)을 개최하고 5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한독상공회의소는 1981년 설립, 500여 개의 기업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한국 양국 간 교역규모가 331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고, 독일의 대 한국 투자가 174.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이날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세

풍산단, 황금산단, 광양항만 배후부지, 그리고 최근 개발이 완료된 대송산단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최근 양극재, 배터리 소재 분야 등 핵심 전략산업 투자확대가 이뤄진 이차전지 산업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외투기업 성공사례와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광양만권은 한국의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외투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차전지 소재 관련 산업중심지로 재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se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240,833원	425,100원	1.77배
4분위	125,531원	220,000원	1.77배
3분위	79,147원	140,000원	1.77배
2분위	48,103원	85,000원	1.77배
1분위	26,697원	47,000원	1.77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0%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